

과학기술계의 스타탄생

과학기술이 지향하는 결과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일반대중 앞에 다가가야 한다. 연구활동도 이제부터는 연구원들끼리 폐쇄된 연구실에서보다는 일반대중과 함께 열린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과학기술활동이 국민과 함께 이뤄지면 과학기술계의 최진실, 과학기술계의 박찬호가 탄생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과학기술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할 것인가. 아마도 많은 과학기술인들을 떠올리기는 하겠지만 선뜻 말문을 여는 데는 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초중고생들에게 던져보면 의외로 쉽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씨없는 수박의 우장춘 박사와 해시계, 물시계를 발명한 장영실이 바로 그들이다. 현재대로라면 이들은 커서도 우장춘, 장영실이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이라고 기억할 것이 분명하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세종시대의 장영실과 일제시대의 우장춘박사 이외에는 훌륭한 과학기술인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인들에게는 관중이 없어

몇년 전 한 월간지에서 과학기술계를 축구시합에 비유하여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축구선수는 상대편과의 시합에서 이기기 위하여 고된 훈련을 감수하고 기량을 쌓아야 하는 것이 마치 과학기술인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운동경기에서는 응원단과 수많은 관중이 동원되고 선수와 관중이 호흡을 같이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는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응원단은 커녕 관중도 없어 외롭기 그지없다.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기(연구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관중없이 텅빈 운동장에서



尹昌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선수들만 뛰는 운동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라. 얼마나 맥빠지는 일인가!

과학기술인들이 일반대중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아마도 과학기술분야가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성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결과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더구나 국민세금으로 연구개발을 하

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결과가 국민에게 알려지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도 똑같이 알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00년대 초에는 세계 7대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로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에 예로 들어 보자. 10개 이상의 대형사업들이 주요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고 각 분야에서 내노라하는 과학기술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속속 그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로라면 과학기술계에서의 스타는 영원히 탄생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과학기술계의 최진실, 과학기술계의 박찬호가 우리 주위 여기 저기에서 활약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연구개발활동은 일반대중과 함께해야

선도기술개발사업과 같은 대형사업이 아니라도 이에 버금가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자기부상열차 개발사업이나 1999년에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위성)의 개발사업 등은 많은 국민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관중도 끌어들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연구개발과정을 설명해 주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땀 흘리는 연구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등 우리 과학기술계의 후원자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많다고 본다. 연구개발활동은 이제부터 연구원들끼리 폐쇄된 연구실에서 보다는 일반대중과 함께, 열린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국가의 사업은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일반대중은 과학기술인들에 대해 믿음직스럽게 여길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마인드가 일반대중 속에 스며들어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 이해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와같이 과학기술인이 전문성을 고집하면서도 일반대중을 수용할 때 비로소 대중으로부터 열렬한 성원과 공감을 받게 되며 이런 환경에서 과학기술계의 스타는 탄생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지난 4.11 총선 때 과학기술계에서 각 정당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을 직능대표로 뽑아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과학기술계로선 TV 텔런트, 가수, 앵커맨 등이 공천을 받거나 직능대표로 추천되는 판에 과학기술인은 당연히 그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앞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바둑에서 말하는 소위 수순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과학기술계가 연예계에서 처럼 일반대중과 호흡을 같이 해왔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가장 영향력있는 분야로 탈바꿈

최근들어 몇몇 대선 예비주자들이 과학기술관련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뒷맛이 씹쓸해 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과학기술분야가 가장 비정치적이고 또한 생산적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실상 사전 대선활동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기 때문

이 아닐까? 그래도 힘있는 정치인이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을 갖는가 싶어 한편으론 안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론 과학기술분야가 정치인에 의해 또 농락당하지나 않을까 싶어 걱정되기도 한다. 이들이 과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에라도 그 중요성을 강조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제 우리과학기술분야가 더이상 농락당하지 않게 할 방법이 꼭 한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과학기술계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일반대중과 어울리는 일이다. 금년 초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과학기술인에 대한 우대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우대조치가 실천된다 하더라도 이렇듯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는 외로울 수 밖에 없고 가장 힘없는(?) 분야로 계속 남게될 것이다. 국민여론에 의해 과학기술분야가 뒷받침되어질 때 비로소 가장 영향력있는 분야로 탈바꿈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로 과학기술인들의 공적 알려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과학기술계가 일반대중에게 접근할 것인가? 우선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중이 무지하다고 알보지는 않았는지..., 대중과 접하는 것이 과학기술인들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나라가 광복 반세기만에 OECD에 가입할 만큼 영광된 오늘이 있기까지는 사회전반에 걸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없었던들 오늘의 우리 경제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을 누가 알아주고 환호해 줄 것인가? 바로 우리 국민, 일반대중인 것이다.

연구개발활동은 가능한 한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의 이해 속에 과학기술이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원로 과학기술인들의 공적을 찾아 그분들의 이미지(Image)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로 과학기술인들을 공경하는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과학기술계가 보다 대중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은 기타 분야의 공로자들 외에도 과학기술계의 장영실, 우장춘박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로가 계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청소년에게, 나아가 온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㉟